낙농인의 마음

성산목장 김 운 형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농업을 천하지대본으로 삼고 살아온 우리 민족도 최근에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발전하면서 농업이외의 농외소득원이 농촌에 들어오면서 우리 농촌도 이제는 활기를 펴기 시작하여 복지농촌으로 가고 있으며 도시민과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본을 얼마만큼 값어치있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발전의 속도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불과 2백여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예를 보면 짐작 할 수 있다. 그것은 얻기는 어렵고 잃기는 쉬운 세월을 그 나라 국민전체가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였으며 영세(永世)불변의 가치 있는 노력의 금자탑을 쌓아 올리느냐에 달려있다. 83년도에는 보기드문 대풍을 맞았다고 떠들석하였지만 털어놓고 보니 37,529천석의 평년작을 약간 넘어섰고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에 따라 정부예산도 추곡수매가격도 동결하였으며 다른 농촌부산물도 평년가격은 유지되기를 희망하였지만 고추, 마늘, 생강 등은 그 값이 폭락했다.

필자는 낙농 전업농가이기에 낙농에 해당되는 몇가지의 사실을 지적하여 새해에 바램을 갖고자 한다.

1. 83년도 축산분야의 회고와 유대 대책

지난80년도 우유파동이후 농가들은 아픔과 상처를 참고 경영개선과 사양관리에 전력을 경주하여 납유업체와의 공정한 유대를 서로 보완하면서 지난 3년동안은 묵묵히 정부시책인 긴축재정에 순응하면서 경영기술을 향상시켜왔다.
작금의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옥수수 수입원인 미국은 자기나라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옥수수 감산시책과 자연여건에 따라 평년작의 50% 정도가 감산되어짐에 따라 국내배합사료 가격이 지난해 11월1일부로 평균 12%선으로 인상 되었고 업계의 비공식 소식에 의하면 금년도 봄까지는 또 한차례의 인상이 전망된다고 한다. 요즘의 정부 발표에 의하면 철도요금과 택시요금의 인상 검토, 정부양곡의 가격현실화는 이미 인상조치가 되었고 학교등록금의 일부조정, 고속도로통행료, 수도요금, 비료가격, 고궁입장료 및 우표 등 공공요금의 인상설 등등 모두가 충분한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들먹거리고 있다.

낙농분야의 유대(乳代) 경로를 보면 80년2월 20일 kg당 266원이 81년3월1일에 304원으로, 82년4월1일에 313원으로 인상된 후 83년말까지 21개월간 동결되었고 그간의 배합사료 가격 추세를 보면 3차례의 인상으로 20%선의 인상을 가져왔으며 앞으로 사료값에 대한 인상요인이 없다고 하여도 유대(乳代) 인상만은 필연적으로 표면화 되어야 한다. 우리정부의 일부에서 비교우위정책론이나 원유대 인상에 따른 유제품의 가격문제등 축산시책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하나 둘이 아니란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5차경제계획 축산진흥정책에 따르면 젖소의 경우 82년말에 226천두가 86년에는 68%가 증가된 383천두의 증식계획이고 이에 따른 옥수수의 수입, 국내조사료 개발은 물론이고 초지조성만도 82년에 58천ha가 86년에는 116천ha로 막대한 정부 지원자금의 살포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농민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의욕이 적극적으

로 뒤따라야 될 것이므로 유대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83년도 낙농 농가의 수지개요를 살펴보면 82년도 하반기부터 송아지 가격의 앙등과 물량부족에서 오는 젖소 가격앙등이 낙농가의 호경기를 이룩케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일 배합사료가격 인상후부터 젖소가격이 대폭 하락추세에 있으며 2년전의 젖소 및 송아지 가격으로 하락할 때에는 낙농경영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낙농인들은 송아지와 우유가격의 투기적이고 기현상적인 가격앙등이나 하락을 바라지 않고 있다. 배합사료가격과 유대와 젖소시세도 안정적이고 기초적인 낙농사업으로 영구히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랄뿐이다.

2. 산지개발과 농기계보급

우리나라도 산지개발로 초지를 조성하여 녹색혁명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학설과 행정의 뒷받침은 오래 전부터 발의가 되었고 또한 계속 실천해 오는 실정이다. 82년도에 발표된 산지개발 10개년 계획에 발표된 바와 같이 이것이 필연적으로 성공이 되어야 육류와 우유의 자급도를 높이고 국민 식생활개선에 큰 도움이 되어 쌀의 소비를 줄이게 되는 정부역점사업 중의 하나이다.

초지조성계획에 뒤따라야 할 것은 산지개발에 필요한 국산농기계의 개발이 시급하다. 국산장비를 살펴보면 이미 경운기는 대중화되었고 현재 트랙타가 보급되고 있는바 트랙타에 부착되는 부속장비가 미흡하여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15°이상의 경사도에서 예취할수 있는 예취기의 개발도 절실히 요청된다. 기업적으로 운영되는 낙농가들은 대부분 구라파등 선진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중농 이하에서는 일본에서 수입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며 국내개발 예취기는 아직 찾아볼 수가 없으나 관계당국에서는 산지개발에 필요한 농기계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계 제조업체와 협조 추진하여 주기를 바란다. 특히 강조할 것은 트랙타와 같은 농기는 대출금의 이자율을 1차산업에 속하는 농업분야만은 2차산업에 속하는 대출금 이자보다 특혜조치가 절실히 요청된다. 선진국의 농촌개발자금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저리로 인하조치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시정책이 요망된다.

3. 낙농인과 권익단체의 조직강화

신생국가가 생기면 그나라 현실에 맞는 정부가 수립되고 행정부처가 구성되어 안으로는 국민을 통치하고 밖으로는 세계만방과 유대를 공고히하여 국가의 융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어떤 나라이든 1차·2차·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개발이 빨리된 품목은 그 정부의 설정목표에 관련업계와의 자율적인 협동이 겸비된 나라일수록 성공의 속도가 빠르다.

농업분야에서 덴마크 농촌이 56년간의 독일 통치에서 벗어나 식민지 생활의 폐허화된 벌판을 녹지로 탈바꿈시킨 것은 오로지 국민의 협동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개척 당시 국민이 사용했던 표어를 보면 ① "하나님을 사랑하라" ② "땅을 사랑하라" ③ "동포를 사랑하라" 또는 개척의 표어로서 ① "밖에서 잃은 땅을 안에서 찾자" ② "무기로 빼앗긴땅 호미로 찾자" 등 인데 여기에 근원하여 현재의 협동조합이나 협회가 조직되어 오늘과 같이 발전된 것이다.

우리 낙농인의 협회인 한국낙농비육협회도 76년 전국의 뜻있는 낙농인들의 발의에 의하여 창립되었고 현재까지 역대 회장단과 임직원들은 협회 강화를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직 우리 낙농인의 기대에 완전한 부응을 못하고 있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큰것으로, 오직 재정의 뒷받침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협회발전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음을 전국 낙농비육농가인 우리들의 반성도 있어야 하겠다.

낙농인이 존재하는 국가에는 협동조합과 협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회원이 부담, 납부하고 있고 또한 징수되고 있다. 이웃 일본낙농협회의 회비징수제도는 전국

낙농인 1 5천호 전원이 기본회비 100엔은 의무적으로 징수되고 원유납유량에 의한 협회예산에서 정해진 비율로 별도로 원유대금지불시 자동적으로 공제되어 지방관계기구를 통하여 중앙협회로 전달된다.

우리나라도 농업분야에 협동조합이 100여개소가 있고 일반산업 분야에도 전국규모의 업종별 단체가 100여개소가 조직되어 업체를 자율적으로 통솔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회비징수는 다양화되어 무역협회는 수출물량의 신용장(L/C)가 개설되면 정해진 비율대로 자동납부가 되고 일반산업에 속하는 단체들도 원자재수입 및 제품판매알선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회비가 징수되고 있으며 우리와 직접 관련이 깊은 유가공협회는 각유업체별로 원유 수량에 의한 정해진 금액으로 징수되어 운영하고 있는 등 다양화된 방법으로 자율책을 강구하여 협회원의 권익과 복지에 관계된 협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있다.

우리낙농비육협회의 회비도 선진낙농국과 같이 낙농비육농가의 부담으로 되어있으나 회비 수금창구가 유대를 지불하는 유업체와 축협, 낙협창구에 의뢰하는 번거러움이 있어 일부 협동조합과 유업체를 제외하고는 회비징수에 애로를 겪고 있다.

군단위 축협과 일반유업체에서의 농민의 권익단체인 본협회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전폭 협조를 바라며 농가스스로가 납유업체에 의뢰해 공제하는 풍토조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협회비를 선진국과 같이 자동징수코자 역대협회장들이 제도적인 공제문제를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왔으나 아직 결론을 못보고 있는 현실로서 이의 조속한 방안은 우리 낙농비육농가가 자진하여 협회에 참여하고 회비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맺는말

전국낙농비육농가를 대변할 단체는 우리모두의 협회인 낙농비육협회뿐으로서 새해에는 협회기능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될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경제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인 협회는 회원의 회비에 의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관계농가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난해 회비 1만원(농가당)부과는 회원으로서는 이의가 있을수 없다고 보며 우리낙농비육농가는 매년 회비를 자진 납부하는 길만이 자기의 권익을 옹호하는 길이 되고 따라서 낙농발전이 가속화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협회 업적중 숙원이었던 월간지 발간과 유가공협회에서 독점수입하던 대유용가 협회로 이관되어 500톤을 수입하여 유업체를 통하여 농가에 배정된 것 등은 앞으로 협회발전에 초석이 될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옥수수의 수입이 자유화될 전망인바 배합사료 국내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없고 정부의 교역정책과 수입선 국가의 제반여건으로 보아 낙농업계에 보기드문 한차례의 찬바람이 스쳐갈 전망인데 이것을 이겨나가는 힘은 오로지 낙농인의 집결체인 협회를 강화시켜 정부의 낙농비육정책에 참여하고, 건의하고 유업체와 배합사료공장과의 공정거래상 농가의 불이익되는 모든 사례는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 좌절시키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낙농인은 협회로 뭉치기를 바라면서 끝을 맺는다.

(필자 충남 천원군 병천면 매성리 거주)

한발양보 거리질서 한발빠른 선진조국
정직으로 믿음사고 친절로 단골사자